

# 광양시 매티재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착수

### 내일 진상면 매티재 개토식 개토제·유해 발굴 시삽 진행 지형 유지, 유해 발굴 가능성 "희생자들 신원 회복에 기여"

여순사건 유족들의 오랜 염원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착수된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개토식이 21일 진상면 매티재(진상면 비평리 산116-23번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토식에는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이삼희 하동군 부군수, 박현용 여순사건위원회 진상규명과장,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선호 광양시 유족대표, 김창문 유족대표 등 시군 관계자와 유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토식은 매티재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의 뒹굴을 기리는 개토제와 유해 발굴 시삽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일대와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번 유해 발굴이 진행되는 매티재는 여순사건 당시 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 뿐 아니라 하동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들이 처형을 당한 장소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형이 거의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이에 광양시와 여순사건광양유족회는 지난 2023년부터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유해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진상면 매티재 인근을 발굴해 줄 것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검토 끝에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9월 유해 발굴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같은 해 10월28일 매티재 현장 조사를 통해 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고,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 작업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 발굴된 유골은 정밀 감식을 거쳐 유족들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광양시가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에 착수하는 개토식을 21일 광양 매티재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10월28일 유해 발굴지 현장조사 모습. 광양시 제공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이번 유해 발굴은 70년 넘게 훼손된 희생자들의 신원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희생자들이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안식을 찾길 바란다. 유족 지원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상처 치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관계자는 "매티재 유해 발굴이 여순사건의 진실에 한발 다가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발굴 작업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희생자·유족 결정도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여수시,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 1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여수시는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와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시 유기동물보호소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면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입양 시 부담한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최대 15만원이며, 입양자 1명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비 신청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여수시 유기동물보호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정책과 반려동물팀(061-659-2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순천 성가톨릭병원

순천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에서 성가톨릭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최종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퇴원환자 등에 예방관리교육 및 지역홍보 등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 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를 실시했으며, 공모에 지원한 71개 기관 중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총 10개소를 선정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인해 전남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심뇌혈관질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장흥군, '지방세' 감면 지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상

장흥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망자 5명을 포함한 총 23명으로 장흥군 거주자는 15명이다.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유가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감면되는 지방세는 사고가 발생한 2024년에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납부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다. 유가족이 희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장흥군은 희생자 및 유가족의 정확한 과세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환급하고, 추후에 상속 취득세도 면제할 예정이다.

장흥=김진환 기자

## 순천시, 정부합동평가 치매관리 '전국 1위'

### 전 시민 치매검사비 지원 돌봄 서비스 우수성 인정

순천시 치매안심센터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치매관리 실적부문에서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전국 1위를 달성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률,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률,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순천시는 이들 분야에서 103.4%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65.7%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듬는 따뜻한 돌봄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 누구나 소득 제한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진단 검사비를 최대 23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교통편의를 위한 송영서비스도 함께 제공돼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보다 편리하게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1:1 치매전담 운영제를 실시해 보건진료소 및 노인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순천시 치매안심센터(061-749-8888)로 전화하면 친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치매 인식 제고와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치매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전에 선정,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순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선납부 할인

### 자진 납부 유도

순천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자들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오는 31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061-749-5763)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납부할 수 있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돼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 10% 할인 혜택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가 수도관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노후 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광양시 제공

## 광양시, 노후 옥내급수설비 교체비 지원

광양시가 수도관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 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물사용검사일 기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중 수도관 부식 및 녹물이 발생하는 연 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수도관 세척 및 노후 배관 교체 비용은 면적별로 50~70% 차등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개인 세대별 배관 11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45만원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이며,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광양시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이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상수도과 담당자가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김용식 광양시 상수도과장은 "시민들이 깨끗한 수도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